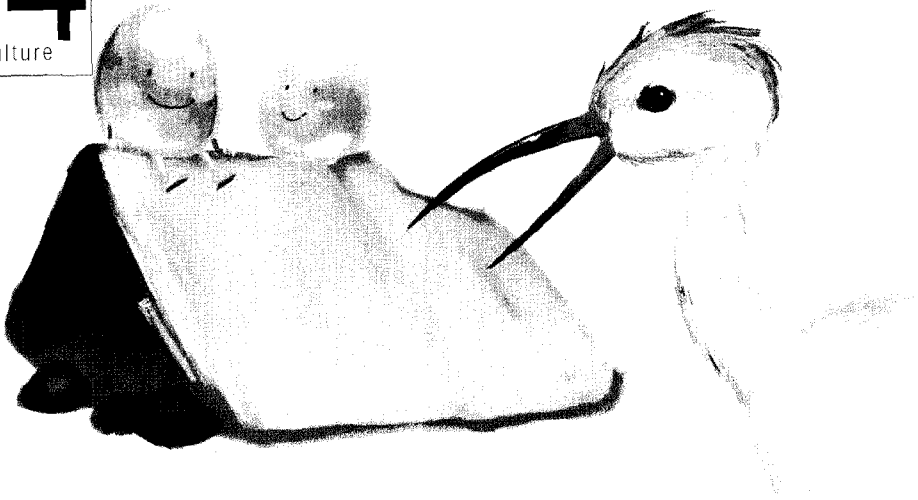


인간과 하천

• 4

River & Culture



김정현 | 동화작가  
(4201708@hanmail.net)

### 하천과 동화

# 엄마와 아빠는 하늘에서 일한다.

물방울 형제들은 언제나 맑고 깨끗합니다. 엄마, 아빠가 씻어 주는 일 없어도 언제나 깨끗한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것은 물방울 형제들이 스스로 깨끗한 몸가짐을 하기 때문이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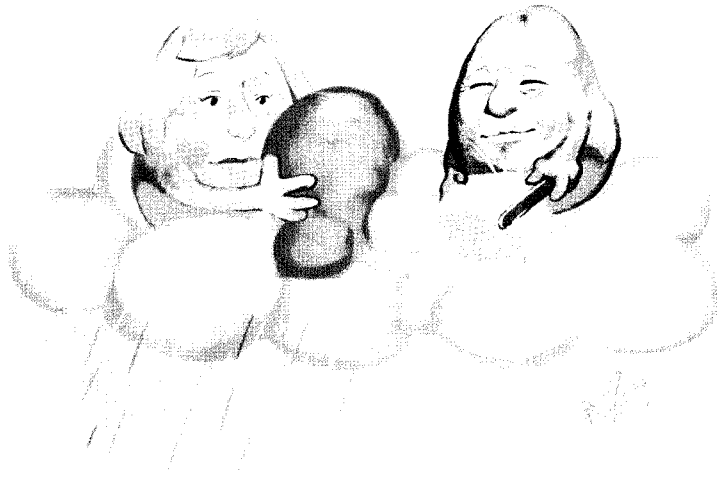
그런데 물방울 형제들은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들끼리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너무나 깨끗하다는 것이 참 이상해요.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반 친구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옛날옛날 얘기에요. 물방울 형제들이 사는 어느 산자락 개울가였어요. 이 개울가는 올챙이랑 물방귀랑, 가재랑, 청개구리랑, 피라미랑 별별 어린 동물들이 많이 모여 놀고 하는 곳이었어요. 숲 속에는 여치랑, 나비랑 잠자리 등이 모여 놀고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하루는 물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갈대숲에 매달린 물방울 형제들을 보고 녀네들은 여기서 뭐 하니 하는 말로 물었습니다. 그런 말에 물방울 형제들은 우린 지금 일 광욕 하는 거야 하며 대답했습니다.

일광욕이란 햇볕에 몸을 쬐는 것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너네들만이 나와서 그런다면 무서운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으면 어떡하니 하며 걱정하듯 하는 말을 물새가 했습니다.

물방울 형제는 그렇겠다고 여겼습니다. 물새는 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네 아빠랑 엄마는 없니?”

물방울 형제들은 말했습니다.

“있어요.”

“있으면 함께 나와 일광욕을 해야지?”

이 말에 물방울 형제는 대뜸 말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없어요.”

“엄마와 아빠가 없다니? 아까는 있다고 하지 않았니?”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그럼 죽었던 말인가?”

“아니에요!”

“?...”

물새는 의아했습니다.

물방울 형제는 함창하듯 함께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일해요!”

“하늘나라에서 일? 무슨 일을?”

“구름을 만들고, 얼음을 갈고 해요.”

물새는 그들 말에 더욱 의아했습니다.

“구름을 만들고 얼음을 갈다?”

물방울 형제는 물새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길게 말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비를 땅에 다 뿌리기 위해 언제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시꺼멓게 만들고 또 얼음을 만들어 갈고 있어요. 얼음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눈썰매를 타게 하기 위해서 갈고 하는 거예요.

얼음을 갈면 바로 눈과 같이 되어 그걸 땅에다 뿌리면 어린이들과 바둑이도 참 좋아라 강충강충 뛰고 놀고 하는 걸요. 산토끼도 눈이 좋아 펄쩍펄쩍 뛰며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와 아빠는 그네들을 위해 하늘에서 밤낮 일하고 있는 거예요.”

물새는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물새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와 눈이 내리면 냇물이 맑고 얼어붙어서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물새가 마음이 편하지 않는 대신에 물속에서 사는 고기들은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새한테 잡혀 먹히지 않아서였습니다.

물방울 형제의 엄마와 아빠는 물방울 형제가 말했듯 여름, 내, 강을 하늘에서 지켜보며 여름에는 구름더러 비를 많이 뿌리게 하고 겨울에는 눈을 많이 내리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